

디젤 엔진이라 믿기 힘든 고요함 ‘S클래스의 품격’

원성열기자의 까칠한 시승기

메르세데스-벤츠 뉴 S350 블루텍

실내 인테리어를 보는 순간 최고의 감동
110km 고속주행 중에도 안락함의 정점
연비 12.9km/L...유해물질 배출도 줄여
진화한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편의사양

흔히 ‘성공해서 벤츠 사야지’라는 말을 한다. 벤츠 뉴 S350 블루텍은 바로 그 부와 명예의 상징인 벤츠의 최상위 플래그십(주력모델) 세단이다. 최근 벤츠는 보다 젊어지기 위해 A클래스나 CLA클래스 등을 출시하며 소형차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최고=벤츠’라는 등식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S클래스와 같은 범접하기 힘든 최상위 모델의 아우라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벤츠를 타고 있어도 탐내게 된다는 벤츠 뉴 S350 블루텍을 시승했다.

●압도적인 실내 인테리어

뉴 S350 블루텍의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자동차의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마치 경쟁 브랜드들에게 ‘진짜 럭셔리란 이런 것’이라고 조언하는 듯하다. 수없이 많은 수입차를 시승해왔지만 차 문을 여는 순간 감탄사가 터져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경험을 하는 일은 드물다.

와이드 타입으로 업그레이드 된 모니터와 차원이 다른 섬세함을 지닌 디지털 계기, 나파 가죽 시트의 고고한 질감, 우드 트림의 정교한 마감과 고급스러운, 독일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부메스터®(Burmester®)의 은빛 스피커를 보는 순간 차량 가격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부와 명예의 상징인 벤츠의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 ‘벤츠 뉴 S350 블루텍’. 품격이 느껴지는 실내 인테리어와 완벽한 정숙성, 안락한 주행성능이 ‘왜 벤츠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들려주는 듯하다.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안락함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는 주행 성능

뉴 S350 블루텍은 배기량 2987cc, V형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258마력(3600rpm), 최대 토크 63.2kg·m(1600~2400rpm)의 주행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6.8초에 주파할 수 있는 성능이다.

디젤 엔진이지만 정숙성은 기대 이상이다. 디젤 엔진이 아무리 조용해도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뉴 S350 블루텍은 가솔린 엔진에 준하는 정숙성을 자랑했다. 국산 준대형 세단에 풀바음을 한 정도의 정숙성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제원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벤츠의 자존심이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까지 속도를 올려도 그 고요함과 편안함은 변하지 않는다. 풍절음을 일부러 들어보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다. 고속주행을 하며 독일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부메스터®(Burmester®)가 뉴 S-Class 고객을 위해 개발했다는 오디오 시스템의 볼륨을 살짝 올리면 그 완벽한 입체 음향에 차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효율성도 뛰어나다. 길이 5.1m에 달하는 이 대형 세단의 복합연비는 12.9km/L(3등급)다. 일반 가솔린 중형 세단을 뛰어넘는 연비 효율성을 자랑한다. 게다가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유해 물질 배출 또한 현격히 줄여 유로6 배출 기준을 만족시킨다.

7G-트론닉 플러스 변속기와 6기통 디젤엔진의 조합은 변속 충격을 전혀 느낄 수 없이 물 흐르듯 부드럽다. 일반주행에서는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단점을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다. 주행 특성에 맞게 ‘E(Economic)’와 ‘S(Sport)’ 모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시프트 패들까지 달려 있어 운전의 재미까지 더해준다. 기사를 뒤도, 직접

운전을 해도 두루 즐거울 수밖에 없다.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대거 적용

뉴 S350 블루텍에는 각종 첨단 안전 및 편의 장치가 대거 장착되어 있다. 가장 인상적인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다. 속도를 설정하면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행하며 앞차가 서면 따라서 서고 다시 출발하면 그대로 따라간다. 특히 이 장치는 시속 30km 이하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경정사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시속 30km 이하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아웃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탐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경고등과 경고음을 통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차선 변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운전 중 차로를 이탈하면 경고음과 함께 방향을 전환시켜 차가 차선을 지키며 달릴 수 있

■메르세데스-벤츠 뉴 S350 블루텍 주요 제원

엔진	V형 6기통
배기량	2987cc
최고출력	258마력 / 3600rpm
최대토크	63.2kg·m / 1600~2400rpm
변속기	7G-TRONIC PLUS
제로백	6.8초
최고속도	250km/h
복합연비	12.9km/L (3등급)
가격	1억2990만원 (부가세 포함)



도록 도와준다. 보행자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인식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않았을 경우 브레이크에 추가 압력을 가해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장착되어 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Driving Assistance Package Plus)라 불리는 벤츠만의 첨단 안전 기술들이다.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의 수많은 첨단 사양들이 장착되어 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과 디자인, 디테일에서 역시 벤츠라는 찬사가 나올 만큼의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흔해진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의 화질만 봐도 그렇다. 마치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질감 없는 선명함을 자랑한다.

한국자동차경주연맹 공인 라이선스 C드라이버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Car Talk! 카톡!

봄철 타이어 관리법

타이어 마모 상태 반드시 점검

꽃샘추위가 지나고 본격적인 봄날들이 찾아온다. 자동차 운행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이어 관리다. 그 어떤 첨단 안전장비를 장착한 차량이라고 해도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다. 봄철 안전운전을 위한 타이어 관리 요령을 살펴봤다.

●스노우 타이어는 사계절용으로 교체해야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면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나 여름용 타이어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겨울용 타이어는 부드러운 고무를 사용하고 또한 트레드 상에 홈도 많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주행할 때는 노면과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지만, 봄철 일반노면 주행 시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타이어 마모도 빨라지기

때문에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와 제동거리의 관계는?

겨울에도 사계절용 타이어를 줄곧 사용해왔다면 타이어 마모 상태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가 심할 경우 특히 젖은 노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다가 급제동할 때 홈의 깊이가 7mm인 새 타이어와 홈의 깊이가 1.6mm로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의 제동 거리는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홈 깊이가 마

모 한계선인 1.8mm에 닿으면 교체해야 한다. 중고 타이어를 구입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타이어는 오래될수록 고무층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 파손위험이 커진다.

●공기압 체크도 필수

적정 공기압도 안전운전의 필수 요소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 각 부분의 움직임이 커져 열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고무가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과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타이어 손상이 쉽게 발생한다. 특히 중앙 부분에서 조

마모 현상이 일어난다. 월 1회 정도는 타이어 홈을 찾아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해야만 타이어가 도로와 완전하게 접촉해 최대의 견인력과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 타이어의 수명 연장도 연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불규칙한 타이어 마모를 방지해 수명을 연장하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5000~10000km를 주행한 뒤 위치를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무릎부분에 실리콘장착,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BLACKLION
KING OF THE OUTDOOR

BLACKLION

옥돌장착

자름 : 28mm
두께 : 5mm
500원 짜리 동전만한
옥돌과 자석

자석장착

www.blacklion.co.kr

국내최초 옥 자석 무릎 보호대

2014년형 신 무릎보호대 출시, 무릎 잡아주는 역할 강화 보호대 차고도 활동성 및 역동성 뛰어나 모든 활동 완벽

무릎 보호대 차고 볼나를 캐러간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와 이미 들과 산은 봄나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나물을 보고 어이쿠 다리야!” 하며 그냥 주저 않는다. 하지만 옥자석 무릎보호대를 하고 부터는 자유자재로 일어 났다 앉았다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부드러워 졌다.” 고 사용해보신 분들은 말한다. 무릎보호대가 꼭 산에 다닐때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격한 운동을 즐기는 동우회 회원들에게도
등산, 사이클, 축구, 농구, 배구등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 일수록 그만큼 무릎의 부담감은 가중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 악화되기 전에 무릎을 위한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등산할때 장시간 산행을 하면 무릎이 시큰한 적이 있어 연골이 많이 닳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다. 그런데 옥 자석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서부터 훨씬 산행하기가 수월해졌다.

국내 최초로 옥 자석 무릎보호대 출시해 인기절정
작년에 이어 2014년형 신모델 블랙라이언 옥 자석 무릎보호대는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강화시켜 역동적이고 활동성을 극대화시켜 격한 운동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게 인기가 높다. 자유자재로 움직이기에 많은 스포츠 매니아도 등산을 즐기는 산악인들에게도 딱 맞는 아이템이다.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품질과 내구성을 강화해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제품명 블랙라이언 옥자석 무릎보호대
회원특가 1세트(2개) ₩ 55,000 2세트(4개) ₩ 110,000 → ₩ 100,000

3월중순 어의도백화점 1층 직영점 오픈예정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중 Tel 02-831-2128 ※

제품신청
1544 - 0247